

전남지역 의료기관 응급실 인력 공백 ‘비상’

공보의 축소 이후 16곳 구인난 심화
응급 원격협진 54.5% ‘전국 최다’
이개호 “상시가동 전담의 확보 시급”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전담의 공급 풀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동시에 발생해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 커버리지의 붕괴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응급실 24시간 가동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 붕괴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을 급락·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보의 총원 상황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공보의 총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여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

준이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되면서 전남 1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휴가·교육·병가를 감안한 최소 3교대(3인+α)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다. 법정 최소기준과 실제 편성 간 괴리가 누적돼 인력 공백이 운영 중단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인력 공백은 응급원

격협진 이용 증가로 대체되는 양상도 보인다”며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누적 5천899건 가운데 전남이 3천216건(약 54.5%)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응급의료기금은 인프라와 운영지원 성격이 강해 인건비 중심의 구조적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총량과 설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취약지 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하려면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총원해야 하는 전담의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2025 청소년독립페스티벌’ 광주학생독립운동 제96주년을 맞아 ‘2025 청소년독립페스티벌’이 지난 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청소년들이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5·18 왜곡·편향 잇단 사법 제재에도 ‘여전’

재단·민언련, 언론사 댓글 등 분석
작년 12월~올해 9월 약 8천건 달해
‘자동 필터링’ 8% 그쳐…‘혐오’ 죄다
오는 5일 국회서 대안 발표·토론회

최근 지만원 등 5·18 왜곡·편향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 시도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7개 언론사의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결과 5·18 왜곡·편향성 댓글(신고대상)은 총 7천93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명 클린봇이 감지해서 조치가 이뤄진 건 673건(8.48%)에 그쳐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자진 삭제는 689건(8.43%), 명예훼손 등에 의한 게시 중단은 46건(0.58%), 운영 규정 미준수 삭제는 10건(0.13%)이었다. 82.38%에 달하는 나머지 6천536건은 신고로 조치가 된 것이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 관련이 2천967건(37.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가짜 유공자 1천640건(20.67%), 이념 비난 880건(10.13%), 무장폭동(비하) 804건(10.13%), 오월정신 편향 640건(8.07%), 북한군 개입(왜곡) 349건(4.4%) 순이었다. 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

링 및 정책대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광주 지역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발제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이관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강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김준경 미디어오늘 기자(5·18왜곡대응 프로젝트 팀장) ▲윤성욱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나선다. 신대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연구가 온라인 공간과 극우 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 편향을 바로잡는 플랫폼 책임 제도와, 시민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추모위 내주 발족

오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범식
유가족協 상경 집회…진실규명 호소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추모하는 위원회가 사고 발생 약 1년 만에 공식 출범한다. 2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추모위원회가 오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 사업 분과로 나뉜다. 피해자 지원 분과는 생활 지원금과 치료비 등 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추모 사업 분과는 추모 공원·추모비 조성, 기념

사업 등의 세부 계획을 세운다.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가족이 추천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 7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여한다. 이외에도 법률·의학·심리·인권 등 민간 분야에서 전문가 9명이 함께한다. 한편 지난 1일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300여일을 맞아 서울 용산역광장 앞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한 후 대통령실 인근까지 영정 사진 등을 들고 침묵 행진을 진행했다. 본 집회에서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블랙박스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기록은 모두 봉인된 채 정부와 국회는 사고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혜도 아닌 오직 진실”이라고 호소했다. /안재영 기자

‘추락·기계 끼임’ 광주·전남서 3명 사상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이는 등 광주·전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8분께 광주 동구 용원동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0대)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전남 오전 10시 27분께에는 순천시 서면 한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B(60대)씨가 돌분쇄 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앞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오전 8시 47분께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 중이던 근로자 C(60대)씨가 작업대 상부와 벽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치료를 받은 C씨는 맥박과 호흡이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 기자
폐기물 창고서 화재…5천800만원 피해
광주의 한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나 5천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3분께 서구 덕흥동의 한 폐기물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2분 만에 초기 진화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전선 등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폐기물들이 있어 완전 진화는 화재 발생 6시간여만인 오후 11시 50분께 이뤄졌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